

<스탈린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서한>

스탈린 동무 귀하

귀하의 지령에 따라 1946년 북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북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선의 남녘에서는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이 남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서 노동당들의 독자적 중앙위원회가 [2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 있는 노동당들에 대한 통합된 지도부는 없으며, 두 노동당 중앙위원회들 사이에 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표자를 파견하는 방식의 비공식적 연계만 있습니다.

1년간의 활동경험은 두 노동당에 대한 단일한 중앙지도부의 부재가 자체의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두 당은 중차대한 당면 정치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과 조치들에 관해서 일치된 지령과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조선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도부 사이에 비정상적 상호관계를 조장합니다.

장래에 조선이 통일되면, 따라서 남조선과 북조선의 노동당이 단일정당으로 통합되면 당내 지도적 지위를 둘러싼 투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우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통합될 경우에 [노동당의] 분파투쟁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 통일과 조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북조선과 남조선의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들과,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에 중앙집권적 지도부의 [존재]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아래 항에 대한 귀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1. 9인의 위원으로 북남조선 노동당의 비합법 통합중앙위원회를 만든다. 북남조선 노동당들의 중앙위원회 정치회의의 결정에 따라 통합중앙위원회에 대표들을 할당한다. 남조선노동당 부의장 박헌영을 통합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삼고, 북조선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부의장으로 삼는다.
2. 통합중앙위원회의 정주지는 평양으로 한다.
3. 통합중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하며, 정치 일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 성격의 당면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을 두 당의 중앙위원회들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T. 시티코프

*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의 북조선노동당 통합으로 인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발표된 김일성의 보고 내용은 다음의 문건에 담겨있다.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8, Box 640, 金日成,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에 있어서의 報告」, 『創立一週年을 맞이하는 北朝鮮勞動黨』,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1947, pp. 1~8. 또한 합당 이후 북조선노동당의 당면 역할과 과제에 대한 문건으로는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8, Box 644, 英煥. 「勞動黨의 創立과 當面한 諸 課業에 對하여」를 참고.

1947년 1월 9일.